

<신인상 시 심사평>

5·18문학상 시 부문 신인상 심사평

응모된 850여 편의 시들 중 다수의 시들이 여전히 당시의 뜻하지 않았던 학살과 이에 따른 상실과 고통에 대한 애도와 진혼의 시들이어서 아팠다. 40여 년이 흘러서도 1980년 5월의 비통과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터라 매 시편들이 옷깃을 여미게 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송고했던 5월에 대한 정치 사회적 왜곡마저 끊이지 않는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한 편 한 편 뜻깊은 추모의 마음을 담아 준 모든 시들이 소중하고, 고맙지 않을 수 없었다.

그중에 한 편의 시를 선정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 마지막까지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이는 「금남로4가역의 기원」과 「행방불명자 900호」 등을 내주신 분과 「존재론의 마지막 쓸모」, 「공공고고학저널, 2716년 여름호」 등을 내주신 또 한 분이였다.

「금남로4가역의 기원」 등은 5·18 당시 희생자들의 죽음을 오늘 여기에 진정성 있게 재현해 내고 있었다. 정제된 언어 속에는 오랜 시간 5·18에 대해 숙고해 온 흔적이 역력했다. 이미 어느 기성 시집 속에 들어 있어도 나름의 감동을 주며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시들이었다. 아쉬움이 있다면 나름의 설득력과 안정감 있는 5월의 재현 이상의 새로움이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신인’의 느낌보다는 익숙한 ‘기성’의 문체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도 고민을 더하게 했다.

논의 끝에 수상작은 SF라는 남다른 실험을 보여주면서 요설 등으로 빠지지 않고, 현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공고히 하고 있는 「공공고고학저널, 2716년 여름호」로 결정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신인’에 준할 도전적 발상과 개성의 새로움이 느껴졌다. 긴 호흡과 자유로운 발화들이 자칫 설익은 언어의 유희나 상투적인 삶에 대한 이해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지점들을 훌륭히 벗어나 있기도 하다. 함께 투고해 준 아홉 편의 시들 역시 긴장감을 잃지 않으면서 고른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한 신뢰가 갔다. 많은 젊은 시인들이 개인의 방에 갇혀 오늘 여기의 사회 역사와 적극적으로 교통하지 못한 채 자의식 과잉의 불가해한 독백들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 남다른 경험과 용기, 투지가 <5·18문학상 신인상>이라는 특별한 자리에 어울린다고 판단했다.

당선을 축하드리며, 부디 더 깊고 예리하면서도 풍요로운 생의 감각을 잃지 않는 강인한 시인으로 나아가시길 바란다.

2023년 4월 25일

2023 5·18문학상 신인상 시 심사위원

고영서 / 송경동